

나의 산쓰레기 견문록

박 기 철
경성대학교 교수



기장 산성산에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이 꽉 찬 산쓰레기들

부산 기장군 기장산성 산성산 369m. 삼국시대에 축조된 기장산성 발굴 조사중인 듯. 영산대학교 해운대 캠퍼스에서 산성산까지 오는 산길에 쓰레기가 많았다. 나는 산에 갈 때 마다 쓰레기 담을 봉지를 가져간다. 가져간 비닐봉지가 작아 쓰레기들을 다 담아오지 못해서 아쉬웠다.



새롭게 개방된 부산 해운대구 장산

해운대 장산 634m. 6·25전쟁 이후 70년 만에 전격 개방된 해운대 장산. 2022년 6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만 개방하고 있다. 개방되어 좋지만 인간의 생태발자국은 더 커질 것이다. 마구 버려지는 자갈한 산쓰레기 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걱정이다.



김해 경전철 봉황역 옆 임호산

김해 임호산 180m. 김해경전철을 타고 김해를 가면 보이는 산이다. 봉황역 바로 옆에 딱하니 잘 생긴 산인데 중턱에 흥부암(興府庵)이라는 암자가 보였다. 사찰보다 작은 암자지만 대웅전을 갖춘 엄연한 절이다. 임호산 바로 옆에 김해 여객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도심 속 산인데 이상하게 산에 쓰레기가 거의 없다. 내려오는 길에 흥부암 보살께 물었더니 김해시에서도 청소하고, 어떤 총각이 또 청소한다고 한다. 전국의 모든 산들이 본받아야 할 임호산.



방석으로 깔고 앉았던 쓰레기 봉지

김해 함박산 167m. 햄버거를 함박이라 하는데 그 함박스테이크의 함박은 아닌 게 확실하고 아마 순우리말 함박꽃, 함박눈, 함박웃음처럼 환하게 핀 모습이라 함박산 아닐까 싶다. 바로 옆 임호산엔 쓰레기가 없더니 함박산엔 쓰레기가 왜 이리 많은지. 쓰레기 담은 봉지를 폭신한 방석으로 깔

고 앓을 만큼 쓰레기가 찼다. 산악회가 사람의 건강만 신경 쓰기보다 산림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등고심광(登高心曠)이란 문구를 함박산 정상석에 새긴 산악회의 뜻에 맞게 밝고 넓은 맘으로 산에 널린 쓰레기 청소를 실천했으면 좋겠다.



산 중턱까지 침범한 문명의 이기(利器)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산(荒嶺山) 중턱 125m. 산 중턱에 까지 올라온 흙먼지털이기가 있다. 오가는 사람마다 작동시켜서 발생하는 반복적 소음도 일종의 쓰레기 아닐까. 주변 나무들도 산새들도 시끄러움에 괴로울 듯하다. 구태여 산 중턱에까지 이런 문명의 이기를 갖출 필요가 있을까. 그냥 손으로 툭툭 털면 될 걸. **인본세상**